광주 '달구벌 무패' 잇고 상위권 노린다

11일 원정 경기…7경기 연패 대구 상대로 3연승 주목
엄지성·이희균의 화력에 안영규·변준수 수비도 안정

반등에 성공한 광주FC가 대구 원정에서 3연승에 도전한다.

광주는 11일 오후 7시 DGB대구은행파크에서 대구FC를 상대로 K리그1 2024 12라운드 대결을 벌인다.

최근 3연승과 대구 무패 잇기가 이번 경기의 목표다.

광주는 최근 6연패의 부진에 빠지면서 최하위까지 순위가 추락했었다. 지난 시즌 광주의 힘이었던 수비가 흔들리면서 패배가 쌓였다. 특히 '추가 시간' 실점이라는 고민을 남기며 힘든 봄날을 보냈다.

광주는 5월 첫날 제주 원정에서 3-1 승리를 거두고 연패에서 탈출한 뒤 대전과의 홈경기에서 2-1 승리를 거두며 연승에 성공했다. 선제골을 내주고도 만든 역전승이다.

광주는 최근 10경기에서 대구와 4승 2무 4패로 호각지세를 보였다.

앞서 광주에서 진행된 4라운드 맞대결에서는 대구가 2-1로 승리를 거두고, 승점 3점을 챙겨갔다. 이 승리는 최하위 대구가 올 시즌 기록한 유일한 승리다.

하지만 광주도 대구에서 강했다.

광주는 2020년 8월 이후 대구 원정에서 패배를 남긴 적이 없다. 대구에서 전개된 5번의 맞대결에서 광주는 4승 1무, 무패 행진을 하고 있다. 특히 3경기에서는 4점 이상을 폭발하기도 했다.

최근 상승세까지 더해 광주의 시원한 화력쇼가 기대되는 이유다.

물오른 엄지성에도 시선이 쏠린다. U-23 아시안컵 일정을 마무리하고 팀에 합류한 엄지성은 복귀 후 첫 경기였던 제주전에서 승리의 주역이 됐다.

전반 매서운 슈팅으로 상대를 압박했던 엄지성은 전반 추가 시간 페널티킥을 얻어내, 직접 키커로 나서 선제골을 장식했다. 시즌 마수걸이 골을 기록한 엄지성은 대전과의 경기에서도 활발한 움직임으로 상대를 흔들었다.

후반 6분 이희균의 골에 앞서 엄지성의 활약이 있었다. 가브리엘의 패스를 받은 엄지성은 헤더로 골 사냥에 나섰다. 골키퍼의 호수비에 막혀 득점은 기록하지 못했지만, 흐른 공을 잡은 이희균이 슈팅을 날려 대전 골대를 갈랐다.

자신감도 넘친다. 엄지성의 프로 데뷔골이 기록된 곳이 바로 대구다.

이희균도 공격의 핵심이다. 올 시즌 골 결정력을 가다듬은 이희균은 두 경기 연속 골을 날리면서 공격 전면에 섰다. 후반 조커로 나서는 정지용도 빠른 발을 활용해 역습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화력도 화력이지만 수비 안정화의 힘도 크다.

퇴장 징계에서 돌아온 주장 안영규와 변준수가 좋은 호흡을 과시하면서 제공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 미드필더 라인에서는 왕성한 움직임의 박태준의 활약이 눈에 띈다. 박태준의 헌신적인 움직임은 정호연의 활약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정호연의 수비 부담이 줄면서 광주 공격 강화라는 효과가 나고 있다.

센터백과 공격수를 오가며 '멀티 플레이어'로 변신한 허율도 든든하다. 허율은 앞선 대전전에서는 최전방 공격수로 나서 머리로 시즌 첫 골이자 역전 골을 장식했다. 득점 이후에는 수비까지 내려와서 대전의 롱볼 역습을 막기도 하는 등 전천후 활약을 하며 박수를 받고 있다.

광주가 최근 7경기 연속 무승에 빠진 대구를 상대로 '대구 강세'를 이어가면서 3연승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허율

전국 태권 꿈나무, 오월 광주서 금빛 발차기 도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 대회
14~21일 빛고을체육관서 개최

전국 태권 꿈나무들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 대회에서 열전을 펼친다.

'제26회 광주 5·18 민주화운동기념 시장기 전국 남·여 중·고등학교 태권도대회'가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광주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총 2346명의 전국 태권도 꿈나무들이 참가해 그간 다져왔던 실력을 뽐낸다.

광주 지역에서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는 남고부 27명, 남중부 37명, 여고부 14명, 여중부 22명 등 총 100명이다.

대회는 핀급, 플라이급, 밴텀급, 페더급 등 중등부 11체급, 고등부 10체급으로 나눠 토너먼트식 개인전(3전다승제)으로 진행된다.

경기 시간은 각 1분30초, 3회전으로 진행되고 30초의 중간휴식이 주어진다.

체급별 상위 1~3위에게는 메달과 상장이, 각 부별 최우수선수(최다득점자)와 종합우승팀 지도자에게는 5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상장 및 트로피가 수여된다.

이번 대회의 유력한 우승 후보로는 상무중 김건웅, 이창민(이상 3년)이 주목받고 있다.

김건웅은 지난해 대한태권도협회장기 태권도대회에서 플라이급 1위에 올랐고, 이창민은 지난해 열린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밴텀급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상무중 최진영(3년), 문성중 김근우(3년)도 기대주다. 이들은 지난 2월 열린 제19회 제주평화기대회에서 각각 라이트급 1위, 2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 개회식은 오는 16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개회식 식후행사로는 조선대학교 태권도학과 70여명의 학생들의 '빛과 그림자 - 태권도의 힘' 공연이 펼쳐진다.

학교폭력 예방과 극복에 관한 내용을 담은 해당 공연은 중·고등학교 선수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 인식을 높이고 우리 사회가 지녀야 할 희망과 용기를 전할 예정이다.

광주시태권도협회 이영석 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오월 광주에 모인 2000여명의 전국 중·고등학생 선수들이 '민주', '인권', '평화'와 강인한 태권도 정신을 함께 함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지난해 열린 '제25회 광주 5·18 민주화운동기념 시장기 전국 남·여 중·고등학교 태권도대회' 모습.
〈광주시태권도협회 제공〉

광주체중 이소은, KBS배 전국육상대회 금

육상부 4개 메달 획득

광주체중 육상부가 '제52회 KBS배 전국육상대회'에서 금1, 은1, 동2를 획득했다.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경북 예천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이소은(3년·사진)은 여중 5종경기에서 3082점을 획득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소은은 지난 4월 열린 '제53회 춘계 전국중·고 육상대회'에서도 1위에 오른 바 있다.

남중 400m에서는 황원우(3년)가 51초62로 이유준(월배중) 50초90에 이어 은메달을 따냈다.

110mH에서는 백의연(3년)이 15초80의 기록으로 1위 이성훈(성서중), 2위 김민기(월배중)에 이어 동메달을 획득했다.

여자1600m 릴레이에서는 이소은·김채원(3년)과 김아인·류지우(이상 1년)가 출전해 동메달을 추가했다.

광주체중 이형근 감독은 "선수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지금과 같은 성적이 나온 건 체계적인 훈련 방법과 선수들의 노력 덕분인 것 같다. 다가오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김민재 골대 강타…뮌헨, UEFA 챔스 결승 좌절

레알에 2-1 패

레알 마드리드(스페인)가 호셀루의 '연속 극장골'을 앞세워 바이에른 뮌헨(독일)에 역전승을 거두고 15번째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우승까지 1승만을 남겨뒀다.

뮌헨의 '철기둥' 김민재는 후반 교체 출전한 지 6분 만에 헤더로 크로스바를 강타하는 등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으나 팀 패배에 고개를 숙였다.

레알 마드리드는 9일 열린 2023-2024 UCL 준결승 2차전 홈 경기에서 경기 막판 2골을 터뜨린 호셀루 덕에 뮌헨에 2-1로 승리했다. 원정으로 치른 1차전에서 2-2로 비긴 레알 마드리드는 합계 4-3으로 앞서며 결승에 올랐다.

레알 마드리드는 파리 생제르맹(PSG·프랑스)을 합계 2-0으로 누르고 올라온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독일)와 내달 2일 영국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우승컵 '빅이어'의 주인공을 가린다.

UCL 최다 우승팀인 레알 마드리드는 통산 15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레알 마드리드는 뮌헨 상대 UCL 9경기 연속 무패(7승 2무)를 기록하며 '천적 관계'를 이어갔다.

뮌헨이 이 대회 레알 마드리드와 맞대결에서 승리한 건 2011-2012시즌 대회 준결승 1차전(2-1 승)이 마지막으로, 12년 전 일이다.

분데스리가에서 레버쿠젠에 왕좌를 내줬으며 독일축구협회(DFB)-포칼에서도 2회전에서 조기 탈락한 뮌헨은 이날 패배로 올 시즌 '무관'이 확정됐다.

리그와 DFB-포칼, UCL에서 뮌헨이 하나의 우승컵도 가져가지 못한 건 2011-2012시즌 이후 12년 만이다.

1차전에서 두 차례 치명적인 실수를 범해 '미운털'이 제대로 박힌 김민재는 이날 뮌헨이 1-0으로 앞서던 후반 31분 교체 투입돼 37분 요주아 키미히의 코너킥을 타점 높은 헤더로 마무리, 크로스바를 강타하는 아까운 장면을 연출했다.

전날 이강인(PSG)에 이어 김민재까지, 한국 국가대표 2명이 모두 UCL 결승 문턱에서 좌절을 맛봤다.

팽팽하게 전개되던 승부의 흐름은 후반 23분 뮌헨 알폰소 데이비스가 골 지역 왼쪽에서 오른발 감아차기 슈팅으로 선제골을 뽑으면서 뮌헨 쪽으로 향했다.

이대로 끝나면 뮌헨이 합계 3-2로 결승에 나가는 상황. 뮌헨은 수비를 강화하는 교체 카드로 '굳히기'를 시도했다.

그러나 레알 마드리드의 '챔스 DNA'는 강했다. 후반 36분 교체 투입된 호셀루가 해결사로 나섰다.

후반 43분 비니시우스의 슈팅을 뮌헨 골키퍼 마누엘 노이어가 제대로 잡지 못하자 문전으로 쇄도하던 호셀루가 재차 슈팅해 골망을 흔들었다. 호셀루는 후반 46분 안토니오 뤼디거가 왼쪽에서 올린 낮은 크로스를 문전에서 오른발로 마무리해 역전 골까지 책임졌다. /연합뉴스

남부대 사격부, 미추홀기 전국대회서 '금빛총성'

남자 쎈타화이어권총 단체전 금
대학부 단체·개인전 메달 획득

남부대학교 사격부가 '제25회 미추홀기 전국사격대회'에서 활약했다.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인천옥련국제사격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김도엽·김민수·박성준·김민수가 남자 쎈타화이어권총 대학부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합작했다.

김도엽은 남자 속사권총 개인전, 김민수는 남자 스탠다드권총 개인전에서 각각 동메달도 획득했다.

여자 공기소총 대학부 단체전에서는 김소현·김효빈·손진주·이지요가 호흡을 맞춰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어 김가은·김성은·김예진·원채은이 여자 25M 권총 대학부 단체전 동메달을 차지했다. 김예진은 여자 공기권총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추가했다.

김순희 남부대 사격부 감독은 "훈련할 때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하게끔 지도했다. 학생들에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마음가짐을 강조하는 편"이라며 "오는 11월 세계대학선수권대회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으며, 나아가 학생들이 꾸준히 실력을 갈고 닦아 국내를 넘어 국제적인 선수로서 뛰어난 기량을 펼치길 바란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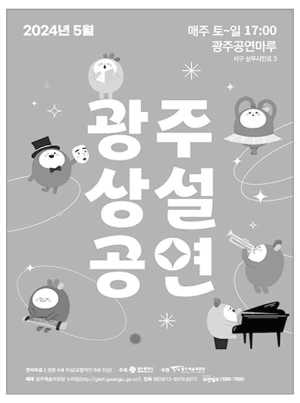
한편 이번 전국사격대회는 공기총 종목만 다뤘던 기존 대회와 달리 권총·산탄총 등 사격 전 종목이 포함, 규모가 확대됐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쎈타화이어권총 대학부 남자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한 남부대 사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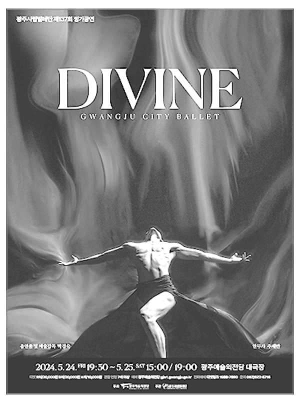
즐거운 문화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년 광주상설공연(5월)

일시 : 2024-05-04(토) ~ 2024-05-26(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광주시립발레단 제137회 정기공연 「DIVINE」

일시 : 2024-05-24(금) ~ 2024-05-25(토)
05.24.(금) 19:30
05.25.(토) 15:00, 19: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415-5502 / 062-522-8716